

남가주 신학대 설교 페스티벌, 미주장신 이견민 전도사 대상

미주 한인인민교회 사명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고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총장 최규남 박사)가 주관한 제4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지난 28일, 홀러튼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개최됐다.

연합 설교 페스티벌은 남가주 지역 신학대의 연합과 한인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리더 육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설교 문화 정착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을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설교 페스티벌에는 "이민교회의 사회적 사명"이라는 주제로 국제개혁대학교 김경립 전도사, 미성대학교 강살롬 전도사,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 다이아나 김 전도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견민

전도사, 에반겔리아복음대학교 잭키 지 전도사, 월드미션대학교 최은 전도사, 베데스다 대학교 장진희 전도사,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정희경 전도사 등 연방 정부 인가기관으로부터 인준된 남가주 지역 신학교가 참가해 한인 이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사야 9:2, 이사야 60:1, 에스겔 47:6-12, 마태복음 5:14-16, 에베소서 2:14-16를 본문으로 설교한 참가자들은 이민교회의 사명을 성공이 아닌 거룩함에서 찾고, 분쟁과 불화, 갈등과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교했다. 또 건물과 성도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넘치는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세대 부흥에 대해서는 기성세대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돌



제4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 참가 신학대학 단체사진

아봐야 한다며, 1세대가 먼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복음을 삶으로 증거 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평을 전한 에반겔리아대학

한기원 교수는 "설교의 발전을 위해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민교회의 발전을 위한 방안과 적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가

져올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설교가 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자살로 숨진 남가주 하비스트교회 재리드 윌슨 목사 추모식 열려



추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줄리 윌슨 사모.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최근 자살로 숨진 미국 하비스트교회 재리드 윌슨(Jarrid Wilson) 목사의 아내가 "교회가 사람들에게 보

다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교회가 정신건강 문제를 진지하

줄리 윌슨 사모 "교회가 정신건강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게 다룰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3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줄리 윌슨(Juli Wilson) 사모는 재리드 윌슨 목사의 추모식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영광'에 대해 솔직해지고, 사람들에게 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리드 윌슨 목사의 기념예배는 9월 29일 그가 부목사로 섬기던 하비스트교회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줄리 윌슨 사모는 "재리드 목사를 기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교회, 삶을 비

롯해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나 사람들에게 더욱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리라. 먼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들을 나누라. 당신의 문제를 나누고, 그들이 당신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라. 우리는 교회에서 뿐 아니라 도시, 각 주를 넘어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이 땅을 어떻게 바꾸실 지 빨리 보고 싶다"고 말

했다.

재리드 목사는 아내와 함께 자살 충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는 사역 단체를 함께 설립한 후, 자살 예방에 힘써 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줄리 사모는 추모 예배에서 "재리드 목사와 처음 만남을 가진 날, 그는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다"면서 "그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그의 열린 마음을 존경한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번역/공증/파산

법무사 ~

- 학교설립 / 인가 전문
 - 연방정부 SEVIS 유학비자 신청
 - 신학/경영대학, 사립초중고교, 홀스쿨링, 유치원
- 교역자 누구나 신학사, 석사, 박사 과정 개설 가능

EG Global LDA Service
 생활법률 속성해결사
 T: (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 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아버지 밥상 교회

주일에배 오전 11:00

홀리스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헬터 사역을 합니다.
 - 도네이션 받습니다. (옷, 신발, 이불, 치약, 칫솔, 의약품...)
 -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남마다 300명분의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Open bank : father's table mission
 라우팅 넘버 : 122043958
 아카운 넘버 : 06209456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월드미션대학교 OC 상담심리대학원

내 안의 나 만나기

"내면가족치료 (IFS)를 통한 내적 치유와 성장"

강사 : 송경화 교수

- 서울대학교 심리학 학사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학 석사
- 클레어몬트신학대학교 상담학 석사, 박사
- 현, 월드미션대학교 상담학 교수
- 현, 클레어몬트한인교회 담임목사 사모

내면가족치료 (IFS) 10주 코스 세미나

2019.10.9 - 12.11 (매주 수요일) 10:00 AM - 12:00 PM

-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IFS로 나 이해하기
- 나를 나 되게 하는 부분, Manager
- 내면의 아픔을 마비시키는 나의 부분들, Firefighter
-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상처받은 아이, Exile
- 내 자신, 내 영혼 만나기, Self
- 내 상처 치유하기, Healing Process
- 나의 뇌와 몸과 IFS
- 내 인간관계 돌보기
- 내 영혼,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
- 내 안의 나 나누기, Part Map

*10주 코스 수료자 본교 입학 시 1학점 인정

참가비 \$100 (10주 코스) | 선착순 25명
 문의 (213) 388-1000 | admissions@wmu.edu
 장소 월드미션대학교 OC 캠퍼스
 (7342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 “유방암 검사 무료로 받으세요”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 맞아 이웃케어클리닉 등과 인식 개선 캠페인 LA지역 한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한인여성 유방암 검사율 저조

한인들의 암 예방을 위한 검사를 북돋우기 위해 주류병원과 한인 교계 및 단체가 뭉쳤다.

10월 전미 유방암 인식의 달(National Breast Cancer Awareness Month)을 맞아 시더스-사이나이 사 무엘 오션 종합 암 연구소(Cedars-Sinai Samuel Oschin Comprehensive Cancer Institute, 이하 암센터) 산하 건강형평성연구소(Research Center for Health Equity, 이하 연구소)는 한인 교계 및 단체와 함께 '한인 암 검사 독려 행사'를 지난 1일, 이웃케어클리닉(구 건강정보센터, 소장 애린 박)에서 열고 한인들에게 암 검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유방암을 포함한 각종 암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연구소의 줄 수라니 커뮤니티 아웃리치 디렉터는 “지난 3~5월 LA와 사우스베이 지역 8개 종교기관에서 열린 암 예방 세미나에서 ‘LA 암과 의료서비스 설문조사(CHILA)’를 진행한 결과, 한인 여성들의 유방암 검사율은 미국 내 타인종 및 타민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수라니 디렉터는 “특히 검사를 받지 않는 주요 이유로 ‘아프지 않

때문’이라고 답해 유방암 예방을 위한 검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인 287명이 참여한 연구소 설문조사에서 유방암 검사 권고 연령인 45세 이상 여성 131명 중 2년 이내에 유방암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8%를 기록했다. 이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밝힌 미국 여성들의 유방암 검사율이 40세 이상은 64%, 50세 이상은 68%와 비교해 크게 저조한 것이다.

대장암 검사의 경우 유방암 검사율보다는 높았으나 미국이나 캘리포니아의 검사율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설문문에 답한 50~75세 남녀 196명 중 대장내시경(10년 이내)이나 대변검사(1년 이내)를 검사 권고 기준에 맞게 받은 한인은 66%로 나타났다. 이는 CDC가 발표한 2016년 미국 성인 검사율 67%, 캘리포니아 주민 검사율 71%보다 낮은 것이다.

암 검사를 받지 않는 이유(202명 응답)로는 ‘아프지 않기 때문(37%)’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이 없음(17%)’과 ‘시간이 없음(16%)’ 등이 뒤를 이었다.

애린 박 소장은 “암, 특히 유방암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 오른쪽에서 4번째)과 시더스-사이나이 건강형평성연구소(디렉터 줄 수라니, 왼쪽에서 4번째) 등 관계자들이 1일 열린 ‘한인 암 검사 독려 행사’에서 한인들에게 유방암을 포함해 암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은 정기검사를 통해 조기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높고 완치 가능성도 크다”며 “이웃케어클리닉에서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등 자격이 되면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들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 및 치료도 정부 지원을 받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암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연구소는 암 검사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 개선 및 교육을 위해 한인 단체 및 종교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구소는 유방암 검사 및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과 지인에게 검사를 권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유방암 인식의 달인 10월을 ‘행동하는 10월’로 정하고 ▶12일 새누리교회 ▶13일 동양선교회 ▶20일 주님의영광교회 ▶26일 LA 온누리교회 ▶27일 성바실한인천주교회에서 열리는 건강박람회 또는 독감 예방접종 행사에 참여해 암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유방암 검사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암센터는 LA 한인타운

을 중심으로 한인 클리닉과 비영리 단체, 종교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 암 예방교육을 확대하면서 건강 전문가 양성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에서는 40세 이상 여성으로 건강보험이 없고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1인 기준 월 2081달러, 2인 2818달러, 3인 3555달러, 4인 가족 월 4291달러)를 넘지 않으면 1년 이상 유방암 검사를 받지 않은 여성에 한해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213)427-4000

[1면 “남가주 신학대 연합 설교 페스티벌” 이어]



제4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에 참석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

설교 페스티벌을 주최한 성시화 운동본부 송정명 목사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설교 훈련의 과정을 꼭 밟아야 한다”

며 “폭넓은 학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설교 훈련을 받는 신학생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자신을 개발하는 귀한 학습의 현장이 되었기 바란다”고 전했다.

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이성우 목사는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며 “지역 신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는 김완중 LA총영사는 “남가주 한인 동포사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동포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인교회는 미주 한인 이민사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동

포들과 애환을 함께해 왔다”며 “이제 이민 2,3세로 한인사회가 이어지는 시기에, 미주 한인 이민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한인교회의 전통과 역할이 차세대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대상은 “우리가 되는 교회”란 제목으로 설교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진민 전도사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미성대학교 강살롬 전도사, 설교주해상은 월드미션대학교 최 은 전도사, 커뮤니케이션상은 베데스다 대학교 장진희 전도사에게 돌아갔다.

미주 성시화운동본부는 대상과 최우수상에는 2천 달러, 설교 주해상에는 1천5백 달러, 커뮤니케이션

상에는 1천 달러, 각 참가 학생들에게 2백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심사는 각 대학 지도교수와 미주 성시화 추천 1인, 또 각 대학의 청중평가단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한편 페스티벌에 앞서 진행된 예배는 이병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의 인도로, 임성진 총장 대표기도, 노진걸 목사 환영사, 송정명 목사가 대표인사를 전했다. 이어 남가주살롬교회 김준식 목사가 “말씀 증거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미주성시화 여성홀리클럽 하프팀이 특별 찬양했다. 풀라신학교 마크 레버튼 총장이 영상 축사에 이어 그레이스미션대학 총장 최규남 목사가 축도했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Kim Quartet presents
SANTA MONICA KOREAN CHURCH
9th ANNIVERSARY CELEBRATION
WORSHIP CONCERT

 Helen Kim, Flute M. M. Royal Academy of Music, London B. M. L.A.C. School of the Arts Dallas Symphony Orchestra Teaching Artist	 Hamin Kim, Cello B. M. & M. A. Royal Academy of Music, London Cellist of Las Colinas Symphony Orchestra Dallas Symphony Orchestra Teaching Artist	 Hana Kim, Violin B. A.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allas Violinist of Meadow Symphony Orchestra Violinist of First Baptist Dallas Orchestra	 Amy Kim, Oboe UNIC School of the Arts Music Diploma B. M.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rincipal Oboist, 2019 Texas Festival Orchestra	 Aerin Woo, Piano B. M. Chongshin University, 2nd class honors Scholar of The Heart Piano foundation Accompanist of Ebenezer Choir	 Mrs. Helen Kim, Soprano 전 (LA)영국교회 독창자 현 산타모니카교회 교회 사모 Yonsei University (voice) Texas Christian University (voice)
---	---	--	---	---	--

SUN OCT. 6, 2019 1:30 PM | Free Admission |
Santa Monica Korean Church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 (310) 502-9999

“내 안의 나를 만나, 치유와 회복의 길로 안내합니다”

“IFS (내면가족치료)를 통한 내적 치유와 성장”

10주 코스 수료자가 보고 입학시 1학점 인정	
10.09 (9) 10AM-12PM	내 심혼 내면의 구조, 영혼의 내면화
10.16 (9) 10AM-12PM	내면의 구조와 영혼의 구조, Manager
10.23 (9) 10AM-12PM	내면의 역할을 이해하는 IFS의 구성요소, Firefighter
10.30 (9) 10AM-12PM	내 안에서 울고 있는 관계중의 아이, Child
11.06 (9) 10AM-12PM	내 자신, 내 영혼 만나기, Self
11.13 (9) 10AM-12PM	내 영혼의 치유하기, Healing Process
11.20 (9) 10AM-12PM	IFS의 뇌와 영혼 IFS
11.27 (9) 10AM-12PM	내 인간관계 돌보기
12.04 (9) 10AM-12PM	내 영혼, 하나님과 영혼 만나기
12.11 (9) 10AM-12PM	내 영혼의 나사기, Part Map

강사: 송경화 교수
 *영국심리상담학회 (UKCP) 10년 경력의 상담사
 *미국심리상담학회 (AAMFT) 10년 경력의 상담사
 *미국가족치료학회 (AIFS) 10년 경력의 상담사
 *미국가족치료학회 (AIFS) 10년 경력의 상담사



내면가족치료 세미나를 인도할 윌드미션대학교 송경화 교수

윌드미션대학교
오는 9일(수)부터 10주간
IFS 세미나 개최

부에나 파에 위치한 윌드미션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총장 임성진 박사)은 오는 10월 9일(수)부터 10주에 걸쳐 “내 안의 나 만나기”라는 주제로 윌드미션대학교 OC 캠퍼스(7342 Orangethorpe Ave. Suite A-103, Buena Park, CA 90621)에서 상담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심리치료 이론인 ‘내면 가족치료 (Internal Family Systems Therapy 이하 IFS)를 통한 내적 치유와 성장’을 다룰 이번 세미나는 우리 마음속의 다양한 내면 인격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방법, 내면의 힐링을 얻는 방법 등을 제시하

게 된다.

세미나를 이끌 윌드미션 대학교 송경화 교수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IFS로 나 이해하기 △나를 나 되게 하는 부분, Manager △내면의 아픔을 마비시키는 나의 부분들, Firefighter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상처 받은 아이, Exile △내 자신, 내 영혼 만나기, Self △내 상처 치유하기, Healing Process △나의 뇌와 몸과 IFS △내 인간관계 돌보기 △내 영혼,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 △내 안의 나 나누기, Part Map 등을 주제로 IFS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송경화 교수는 “내면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이나, 내 안에 상처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 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나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분들, 그리고 상담 사역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강의가 될 것”이라며 “성도들을 심방하고 영적으로 돌보는 목회자들과 선교사, 평신도 리더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강의”라고 소개했다.

송 교수는 이어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인격들이 존재하면서 내면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상처

받은 인격으로 인해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또 우리의 내면 심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뿐 아니라, 뇌와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치유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OC 지역 한인 커뮤니티와 교회에 필요한 매우 유익한 세미나 과정”이라며 OC 지역 한인들과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초대의 말을 전했다.

강사로 나서는 송경화 교수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기독교 상담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목회상담학,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 등을 공부했다. 본국 강남대학교와 총신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윌드미션대학교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세미나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선착순 25명을 대상으로 총 10주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비는 \$100달러다. 10주 코스 수료자는 윌드미션대학교 입학 시 1학점이 인정된다.

등록 문의는 윌드미션대학교 전화 213-388-1000 웹사이트 www.wmu.edu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창립 9주년 감사 음악 예배

산타모니카, 말리부 지역의 유일한 한인교회인 산타모니카 한인교회(담임 김경렬 목사)가 창립 9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6일(주일) 오후 1시 30분 창립 감사 음악예배를 드린다.

창립 감사예배는 본국 하나교회 하상훈 목사가 설교하고, 달라스 지역에서 활동하는 Kim Quartet가 특별 연주, 소프라노 김우영 사모가 특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예정이다.

특히 4남매로 구성된 챔버 앙상블 Kim Quartet가 플루트, 첼로, 바이올린, 오보에로 특별 연주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Kim Quartet의 첫째와 둘째인 헬렌 김씨와 하민 김씨는 최근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현재 달라스 심포니에서 연주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셋째와 넷째인 하나 김씨와 에이미 김씨는 달라스 서던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 전액 장학생으로 음악과 경영을 공부하고 있다.

Kim Quartet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4남매 모두 교회에서 찬양하며 음악을 배우고 성장했다. 또 4남매가 모두 음악을 전공하고 프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Kim Quartet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 재능으로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젊은 세대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자 한다”며 “연주회를 원하는 미 서부지역 교회는 이메일 helenhaeunkim@gmail.com 전화 682-266-3131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창립 9주년을 맞은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김경렬 목사는 “교회가 사람을 모으고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섬기

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교회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며 “산타모니카, 말리부, LA 서부 지역 분들이 창립 9주년을 감사하는 자리에 참석해주시길 바란다”고 초대의 말을 전했다.

산타모니카 한인교회는 UCLA, 산타모니카 대학 등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 지역 훌리스

이번 감사음악예배에서 특별연주를 맡은 Kim Quartet

들을 위한 푸드뱅크 구제 사역에도 힘쓰며 산타모니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다.

이인규 기자

일시: 10월 6일(주일) 오후 1:30
 장소: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주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문의: 310-502-9999)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11월 1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3) 미소의 품격

뒤센 미소로 더 큰 행복을 누리자

행복을 보장하는 행복 활동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인지적 활동(Cognitive Activities)들과 육체적 활동(Behavioral Activities)들로 나뉩니다. 인지적 활동(Cognitive Activities)들은 감사하기, 참회(반성)하기, 행복한 순간 회고하기 등등입니다. 육체적 활동(Behavioral Activities)들은 미소 짓기, 운동, 여행, 이웃 돕기, 노래하기 그리고 춤추기 등등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러한 두 가지 활동들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짜 미소입니다. 반대 용어는 팬암 미소(Pan Am Smile)입니다. 역시로 웃는 까짜 미소입니다. 과거 팬 아메리칸 월드 에어 웨이(Pan American World Airways) 항공사 승무원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던 서비스 미소(까짜 미소)를 빗댄 표현입니다.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보이려고 얼굴 아랫부분 근육만을 이용해서 입가만 살짝 들어 올리고 웃는 미소입니다. 항공사 승무원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미소인 팬암 미소를 짓습니다. 진심이 아니기에 미소 짓는 사람도 미소를 보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만 교수는 미소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 근육 42개를 조합해 총 19종류의 웃음 혹은 미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힙니다. 놀라운 것은 이 19개의 미소 중 딱 한 가지만 진짜 즐거워서 웃는 것이고 나머지 18개는 가짜로 웃는 것임을 밝혀냅니다.

사람들은 광대뼈와 입술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협골근과 입술 가장자리 근육인 구륜근을 웃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진짜 웃음은 이런 근육뿐 아니라 눈 가장자리 안륜근을 사용한다는 것을 폴 에크만 박사가 밝혔습니다. 안륜근은 진짜로 웃을 때만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안륜근을 사용한 진짜 미소에 눈가 주름이 생깁니다. 눈가 주름이 행복 주름입니다.

이 행복한 자연 미소를 처음 밝혀낸 사람이 19세기 프랑스 신경심리학자 기욤 뒤센(Guillaume Duchenne)입니다. 뒤센은 사람이 활짝 웃을 때 광대뼈와 눈꼬리 근처의 안륜근이 움직여서 미소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어떤 꾸밈도 없이 진짜 기쁨에서 나오는 '자연 미소'를 이 미소를 발견한 기욤 뒤센을 기리기 위해 뒤센 미소(Duchenne's Smile)라고 부릅니다. 이는 기쁨과 행복을 담은 미소를 말합니다. 입술 끝이 위로 당겨질 뿐 아니라, 두 눈이 안쪽으로 약간 모이면서 눈가에 주름이 나타나고 두 뺨의 상반부가 들려지는 미소가 진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이번 주 10월 1일부터 세계 속 400 곳의 미전도종족을 위해 날마다 한 종족씩 연합기도하는 세계 교회 기도 릴레이가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세계 미전도종족 기도운동을 선도하는 두 단체가 연합하여 이루어졌다.

“세계기도 다이제스트(GPD)”가 있다. 이 단체는 지난 40년간 세계 속에서 중요한 기도정보를 수집하여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해왔다. “자슈아 프로젝트”는 미전도종족을 찾는데 주력해 온 단체다. 이 두 단체가 연합하여 매일 한 종족씩을 소개하여 온 교회가 참여하는 세계교회 기도운동을 이끌고 있다.

이 기도운동에 미주에서 탄생한 한인 선교단체인 실크 웨이브 미션(SWM)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이 연합하여 만든 400 미전도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 및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연합기도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필자의 교회도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매일 한 종족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개인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겨내야 하는 온갖 환경과 상황 속에서의 미시적인 신앙적 싸움도 있지만 보다 더 거시적인 면에서의 영적 전쟁은 이 세상 하나님 나라 군대들이 총동원하여 악한 사탄의 권세와 치르는 대 전쟁의 개념도 이해해야 한다. 이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내는 연합기도이다.

세상의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교회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없이는 복음의 문이 열린 적이 없다. 우리나라도 150년 전에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던 나라이다. 그런 이 민족을 품고 세계 속의 교회들이 기도하였고,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사랑을 부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가득하고 선교 선진 민족이 되어 세계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지구 상에 최후로 남은 400개의 미전도종족을 복음으로 덮기 위한 세계교회 연합기도운동은

이 세상을 성령의 충만한 기운으로 덮을 것이며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력하게 세워질 것을 믿는다. 이제 그 남은 종족 가운데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혼들이 강성하게 생겨질 것이다. 그 땅에 기도가 증가할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복된 날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그들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온전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의 시작이 “기도운동”이다. 기도운동은 세계 속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으로 일으켜야 하는 총동원 영적 전쟁인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8-19).

미주 속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여! 400 미전도종족을 위해 기도하는 “세계연합기도운동”에 우리들의 400일을 드리자. 교회가 400일을 함께 기도하자. 1세뿐만 아니라, 2세대도, 더 나아가 다민족 공동체들도 선교단체들도 전 세계의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운동에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아오는 복음 전파 사역의 영적 물꼬를 트는 기도운동이 되기를 바란다.

웹사이트 silkwavemission.com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앞서는 젊은 스타일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up}

매직스트레이트 \$120 up

프로세서블-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인터뷰]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

위기의 다음 세대, 가슴으로 품는다

양떼 커뮤니티를 이끄는 이요셉(33) 목사가 집회차 LA를 방문했다. 이 목사는 뉴저지 빅토리 인 엘에이(Victory in LA) 청년 연합집회를 비롯해 은혜한인교회, 세리토스 선교회, 환돌선교회, 사랑의 빛선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과 영혼구원을 강조했다. 이요셉 목사를 만나 위기의 청소년 사역과 차세대 부흥을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양떼 커뮤니티는 '양아치 떼'의 준말로 이요셉 목사가 9년 전 시작해 지금까지 가출 청소년, 성매매와 동성애에 노출된 아이들과 동고동락하는 선교단체다. 이 목사는 가정과 사회에서 내몰려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인 양떼 흙을 운영하고, 거리학교란 이름의 대안학교를 통해 위기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개척해 거리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예배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요즘은 양떼들을 위한 비즈니스를 준비하며 선교사 파송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하는 일문일답

-양떼 커뮤니티 사역을 소개해 달라

“가정과 학교, 사회마저 등 돌린 십 대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역입니다. 경찰서든 길거리든 학교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밥을 먹으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이다. 거리 청소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양떼 흙이라 불리는 8개의 생활관을 만들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양떼 흙에는 전신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 출신 아이들을 비롯해, 성매매, 동성애를 하는 청소년들, 자살하려던 아이들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이 생활한다.”

-양떼 사역을 시작한 계기가 있었나?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맡게 됐다. 그런데 가출 청소년들이 교회에 들어와 잠을 잤다. 본당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그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니 '다음 세대가 교회로 오지 않는 시대에, 교회로 온 아이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이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낼 때 밥을 사먹이고 보내다가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려주겠다' 약속했다. 그러면서 처음 12명가량 아이들이 모여서 시작한 예배를 양떼예배라고 불렀다. 위기 청소년 아이들은 가정이 깨진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친구들과



이요셉 목사(좌)와 양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선교 모델을 창출하는 신진욱 선생(우)

의 관계가 밀접하다. 친구들을 따라 하나둘씩 교회에 모이다 보니 130명까지 모이게 됐다. 지역 가출 청소년을 비롯해 소년원 출신 아이들까지 교회로 왔다. 그들이 막상 교회에 오니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교회 장비를 내다 팔고, 커텐에 불을 붙이는 아이도 있었다. 예배 중에 경찰이 찾아와서 절도죄로 아이들을 데려가기도 했다. 결국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고, 아이들이 저를 따라오면서 양떼 커뮤니티 사역도 시작됐다.”

-양떼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양떼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돈이 아니다. 돈이야 아이들을 사랑하면 빛을 낼 수도 있다. 모텔촌이나 클럽, 유흥가의 뒷골목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는 한 영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간증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때가 목회자로서 회의감이 든다. 사랑하고 품어주지만 계속 반복되면 사랑하기 어렵다. 아이들만 보고 했으면 벌써 그만뒀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보려고 한다.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만 드러내려고 한다.”

-지난 9년 사역의 성과를 꼽는다면?

“그동안의 성과는 변화된 영혼들이다. 그들은 양떼 커뮤니티의 자랑이다. 하나님을 가장 배척하고 증오했던 아이가 같이 사역하고 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더라. 그들이 평평을 면서 간증하고 지금은 예전의 자기와 똑 같은 모습의 아이들을 맡아서 사역하고 있다. 현재 군생활하고 있는 한 아이는 신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찬양사역자가 꿈이다.

속 썩이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지만, 변화된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데리고 가면 바뀔 것이라 믿는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상급이다. 세상에서는 문제아라고 불렸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힘이 난다.”

-차세대 부흥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다. 그들은 다가올 한국 교회의 60년을 책임질 세대들이다. 한국 교회는 지금 기성교회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교회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만큼 위기다. 위기의식만큼이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세미나와 컨퍼런스가 많다. 문제는 거기서만 끝나는 데 있다.

현장으로 가야 한다. 교사들의 교육에만 신경 쓰는데서 그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관계성을 맺어야 한다. 교회 건물에 쏟는 관심의 반절만이라도 청소년들에게 주면 눈에 띄게 부흥한다. 질적인 부흥뿐 아니라 양적인 부흥도 함께 따라온다. 교회가 차세대 부흥

을 원한다면 그들이 있는 현장으로 나가면 좋겠다. 교회라는 공간에 갇히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좋겠다. 차세대 부흥을 원한다면 실제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재정과 시간을 써야 한다.

많은 교회가 청소년들이 찾아오길 기다린다. 그러나 10년을 현장에서 만나야 한번 교회에 온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자문해봐야 하는 때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낮은 곳으로 임할 때 성도들도 복음을 깨닫는다. 복음은 순수하고 진실할 때 더욱 빛난다.

엘에이에도 한인 위기청소년이 많다고 들었다. 보이는 위기보다 보이지 않는 위기가 있다. 바로 가치관, 문화의 위기다.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교인들이 많다. 자신의 가치관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이야기 하지만 세상의 부와 문화, 물질적 쾌락을 선택한다면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슴에 전해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의 사람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과 추구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낮아짐을 찾아보지

힘들다.”

-청소년 사역에 가장 필요한 마음은 무엇인가?

“모든 영혼은 똑같이 소중하다라는 마음 같다. 인종이나 피부색, 빈부격차로 한 영혼의 가치에 차별화를 둘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학교 공부 잘하고 신실한 학생들과 상처 받고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한 영혼이다. 나의 입장에서 좋아 보이는 아이들만 교회로 인도하면 세상과 다름이 없다.

또 청소년 사역의 근본은 희생이다. 상황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회가 희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물질과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아니었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듯이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홈리스, 동성애, 성매매로 지친 아이들이다. 이 사역이 다른 사역보다 대단하거나 혹은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십자가 복음이 모든 이에게 필요하듯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 역시 당연하다.”

-양떼 커뮤니티 사역의 목표는 무엇인가?

“양떼 커뮤니티의 목표는 없어지는 것이다. 위기 청소년이 많아지면 안 된다. 양떼 커뮤니티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없어짐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부흥하고 있다. 목표 라기보다 사명이라면 교회와 학교, 비즈니스를 통해 아이들의 삶에 희망을 전하는 것이다. 또 비즈니스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사는 가정을 파송하는 꿈을 꾸고 있다. 소년원과 성매매를 전전하던 아이들이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복음을 새로운 양떼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나아가 예전 그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상담하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다.”

-앞으로 사역 계획이 있다면?

“3명의 전담 선생님과 시작한 거리학교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길 바란다.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검정고시 통과를 시작으로 희망의 문을 열어주고 싶다. 10월에는 국숫집을 열어 비즈니스 선교 모델을 창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 아이들을 선교사 과정으로 훈련시켜 어둠의 거리에서 열방의 거리를 누비는 하나님의 리더로 거듭나길 기도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박사/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칼럼/상담 경력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스룹바벨의 다림줄과 두 감람나무

스가라 4:1-14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버림받아 느브갓네살에게 망하고 이스라엘 성전도 허물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들짐승이 새끼치는 곳이 되었으며 멸망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을 일삼게 될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책망하시며, 돌이키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결국 이방인들의 손에 형편없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대로 70년간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생활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강제 노역과 멸시, 천대를 받으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대로 70년 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앞세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으로 태워버린 잿더미를 헤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십니다.

그 당시 형편으로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성전 지을 여력도 없었으며 형편도 불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성전재건을 촉구하시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Might, Power라고 하는데 힘, 권력,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 Strength인데 이것은 체력, 정신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능은 히브리어로 코아흐, 영어로는 Wealth로써 재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들의 힘과 권력, 재력 등, 세상조건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와 신(히,루아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전재건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재건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능력의 성령께 이끌려 쓰임 받기만하면 성령이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며,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속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대로 믿어져서 말씀에 이끌려 성령께 쓰임 받는 영적신앙체질로 하늘 소망의 결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황금 등대는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성령이 불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금으로 된 사발 같은 것이 꼭대기에 있고 거기에서 일곱 개의 관이 연결된 그 끝마다 촛대 같은 등잔이 하나씩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0에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하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완전 수 일곱으로 표현 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3과 세상(동서 남북)을 뜻하는 4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완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은 기름이 관을 통해 공급되어질 때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계속 관으로 흘러 들어가서 빛을 밝히는 것으로 교회는 진리가 정통해야 하고 성령이 충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참으로 웅장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이 성전 지어 드리기를 소원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통해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기둥뿐 아니라 모든 것이 순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 이스라엘과 기꺼이 그 성전에서 교제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완악함과 죄악으로 성전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비참한 인생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며 실패하는 인생으로 급변해가는 그 죄 값의 실상은 아무도 감당할 길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9:11-13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중략)...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하셨습니다.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라고 재촉하시는 하나님 앞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여러모로 난감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도 재원도 부족했지만 사단의 훼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7월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소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땅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하면 사단이 자기 앞잡이들을 내세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훼방하고 대적합니다. 이런 사단의 훼방이 크면 클수록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역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훼파된 후

그곳에 몰래 들어와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유대인들에 의해 자기들이 밀려나 예전처럼 살아가게 될까봐 훼방을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 바사(페르시아)의 총독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공작을 해서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건축을 지연시켰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의 총독들이 합심해서 다리오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해달라고 상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사야 45장에 소개되어 있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허무하게 쳐부수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70년간 착취당했던 품삷을 받아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 주변 나라와 총독들이 적극적으로 성전재건에 협조하라고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성전재건을 막았던 자들이 협력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본문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재건은 준공을 하게 됩니다.

10월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와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야모스 7:7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했습니다. 이 다림줄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원칙으로 심판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재건의 총책임자인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새로운 장소로 삼아 관계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쥐어주신 다림줄(성전재건사명)은 유대인들로 자원해서 지원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와같이 성은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장목사를 보내시어 오늘과 같은 부흥과 선교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성은가족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회개하여 용서받음으로 성령을 모셔 들인 사람이 곧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19-20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중략)...그러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16-17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한 말과 행동, 생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에 이끌려 거룩한 성전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신앙인격과 의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가 성령으로 함께 하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써 흠도 티도 없이 관리하여 요긴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지체로 쓰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중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튜브 (복음 채널) 방송선교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Puente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추석맞이 SPECIAL SALE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500 LEASE CASH,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250 LEASE CASH,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남상국 목사 “요한 계시록 특강” 성황

오는 5일(토), 26일(토) 오전 11시 특강 이어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남상국 목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주와 한국,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예배와 성경 자료를 공유하는 내 교회를 창립한 남상국 목사가 지난 28일, 엘에이 한인 회관 강당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제목으로 진행한 요한계시록 특강이 성황리에 열렸다. 남상국 목사의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강의에 참석자들은 큰 호응을 보였고, 한바탕 웃는 동안 요한계시록의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남상국 목사는 “특강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다”며 “앞

로 이어지는 두 번의 강의는 참석자들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오진형 목사의 인도로 정종윤 목사의 대표 기도, 추남수 장로가 성경봉독, 박정현 전도사가 찬양했으며, 양승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남상국 목사는 오는 5일(토) 오전 11시, 26일(토) 오전 11시에도 엘에이 한인 회관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요한 계시록 특강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 949-285-7242 김동욱 기자

뉴처치 ‘빅토리 인 엘에이’ 전도 집회 한인 청년 62명 결신



뉴처치 “빅토리 인 엘에이” 집회 후 스텝 단체 사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힐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 처치(담임 최순환 목사)가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 제2회 “빅토리 인 엘에이”(Victory in LA) 전도 집회에서 62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뉴처치 성도들은 이번 전도 집회를 위해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매주 4회씩(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노방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했고, 특별히 한어권 청년들과 청소년을 전도를 위해 노력했다. 최순환 목사는 “이번 빅토리 인 엘에이 전도 집회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었다”며 “참석자 모두가 순수한 복음을 접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고, 비신자들은 복음에 반응하는 기회, 기존 신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도전받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최 목사는 이어 “3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한 전도 집회에 3일 간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청년

들도 복음을 접하고 결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청년부 리더인 최혜원 자매는 “개인적인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도시를 품는 그리스도인 청년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며 “LA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하고, 지금은 주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전도 집회는 첫째 날 이재환 목사(새들백 교회)의 설교, 둘째 날 최순환 목사(뉴처치)인도로 헐리웃 거리 전도 집회가 가졌다. 셋째 날은 이요셉 목사(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설교했다. 특히 한국에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요셉 목사의 설교는 청년들에게 큰 도전의 메시지를 주며 결심으로 이끌었다. 한편 뉴처치는 개척된 지 2년 된 교회로 교회 구성원 대부분이 청년들이며, 남가주 지역에 청년 복음화와 미국 전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을 품고 있다. 정은진 기자

놀워 장로교회 임직예배 드리고 3명 직분자 세웁



놀워장로교회 임직예배

놀워 장로교회(담임 차권희 목사)는 지난 29일 임직예배를 드리고 하재복 장로, 김순옥, 소속옥 권사 등 3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임직예배는 차권희 목사의 인도로 김진국 목사가 기도하고 허귀암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행 13:21-23)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아모스 이 목사가 특별찬양을 불렀다. 허귀암 목사는 “오늘 임직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이 되어, 더욱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길 바란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이 감사와 은혜로 주께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직예배는 장로 권사 임직 서약에 이어 안수기도와 공포, 임직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최국현 목사의 축사에 이어 차권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은진 기자



LA 지역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김성식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씨니킴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면2세를 확립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ilen 교차로)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장태원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dia.com

최순환 담임목사

갈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한천영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강진웅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광기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정인호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김종호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박은종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 isaacdeu@hotmail.com

김장수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받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주향 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김신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심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김경열 담임목사

평화교회

사랑과 진정으로 인해 성결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끄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jccchurch

김은목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축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김경열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 gmail.com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김하나 목사, 설교 그대로 할 것”

새벽기도회 설교서 수습안 통과에 대해 전해



김삼환 목사

“법 지켜서 위임식 다 했는데, 지난 총회 때 다 뒤집혀”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가 28일 새벽기도회 설교에서, 지난 26일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 마지막 날 '명성교회 7인 수습권위원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통과에 대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

김삼환 목사는 “지난 1년간 전권을 맡겨 분란을 수습했던 서울동남노회 수습권위원회가 마지막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내려와서 한 말씀 하는게 좋겠다고 했다”며 “이미 사과해서 내키지 않았지만, 책임자들이 이야기했기에 내려갔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제가 총회 분위기를 잘 알지 않겠다. 우리 총회는 우리나라 제일 중심 교단”이라며 “일제시대 때부터 목사님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독재시대 때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중심을 잡고 바로서서 1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다”고 보고했다.

그는 “우리 교단 지난해 총회에서 우리 교회의 결정을 어렵게 했고,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총회가 잘못 해도 말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다”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한다. 총회는 가정과 같다. 교회도 가정처럼 운영돼야 한다. 가정은 ‘범이요’ 하고 판지 걸면 끝난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삼환 목사는 “가정에서 노동시간 정해놓고 일하는가? 가정은 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교회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운영돼야 법이 지배하면 이미 안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싸우면 안 된다. 저는 어떻게든 안 싸우려고 노력했다. 모두 내 잘못이라고 했지, 총회를 향해 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총회 석상에서 앞으

로 나가는데, ‘나가지 말라’는 분들도 있었다. 하지만 들어보니 ‘아닙니다, 나가야 합니다’ 하고 박수쳐주는 분들이 몇 배 많았다”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죽겠구나.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생각했다. 늘 외로웠는데, 이렇게 지지해 주니 좋았다”고 전했다.

그는 “인사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되더라. 물어볼 곳도 없었다. 총회장님은 ‘목사님은 워낙 감동을 잘 주기 때문에 다 녹아질 것’이라는 거다. 제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냐고 했다”며 “밤에 기도하다 마음이 들어왔다. 감동이 와서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날 김 목사가 총회 석상에서 했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목욕을 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하라는 일 안 하고 목욕한다면서 회초리를 때리셨어요. 코피가 터지고 입에 피가 났어요. 아버지께서 때리다가 피를 보고는 안 때리시고 피를 닦아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구나, 잘못했지만 닦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구나.’ 그렇게 평생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총회가 많이 때렸으니, 이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달라. 피가 났을 때는 닦아주시는 게 좋다” 그랬더니, 평생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 그렇 게 울었다는 분들이 많더라”며 “목사님들이 감동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총회는 법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모인 곳 아닌가”라고 했다.

김 목사는 “총대들에게 ‘한 번 우리를 때린다고 끝나는 일 아니니고, 이단과 언론 등이 다 달려든다는 걸 아셔야 한다. 총회가 때리는 걸 총회만으로 보면 안 된다. 합동 측은 우리와 비슷한 사랑의교회가 법원에서 목사 아니라고 하니 없는 법까지 만들어 교회를 살렸는데, 우리는 없는 법도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너무 힘들다. 살려

주셔야지 자주 죽이려고만 하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헌법재판소처럼, 총회도 헌법기구가 있다. 재판부가 있고 규칙부가 있고 헌법위원회가 있다. 지난 2년간 이 세 곳에서 다루리 교회 승계를 합법이라고 판단했는데, 작년 총회에서 불법이라고 결정해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다 뒤집어 버렸다”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했더니, 법대로 해야 한다더라. 위임식도 다 했는데. 마치 고기를 먹고 다 소화시켰는데, 고기 꺼내라고 하는 것 아닌가. 법을 다 지켜서 했는데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김삼환 목사는 “하지만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자리에서 명성교회 정상화와 회복에 찬성하면 손을 들고 했다. 3년 내내 반대하던 분들이었는데. 1,142명 중 1,011명이 손을 들어줬다”며 “우리 교단이 목사 한 명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데, 전체가 정상화를 바랐다. 더 이상 괴롭혀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7인 위원회가 가져온 수습안에 1,200여명 중 920명이 또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총회에서는 명성교회를 완전히 해방시키라고 했지만, 7명 중에 몇몇 분들이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참아야 한다. 담임목사 승계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기도하면서 총회 화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2021년 1월까지 담임목사는 당회장직이 정지되지만, 설교는 다 그대로 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한다. 그리고 다시 청빙하거나 공동의회 하거나 이런 것 절대 없이 당회장을 세우라는 것”이라며 김하나 목사가 기존대로 설교를 계속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김삼환 목사는 “총회에 대한 경과만 간단히 말씀드렸다. 1년 3개월간 우리 더 기도해야 한다. 아무쪼록 우리 교단이 잘 돼야 한다”며 “저는 총회를 진정처럼 생각한다. 총회의 허물을 말해선 안 된다. 총회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럴 수 있지, 내가 잘 해야지’ 해야지, 총회를 향해 돌 던져선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또 “그렇게 하다 여기까지 왔다.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다. 늘 교회에 저주고 총회에 저주고 맞는 은사만 갖고 있다”며 “앞으로 기도 더 많이 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김동호 목사 “가나안 성도 증가? 명성교회 핑계대지 말라”



김동호 목사

김동호 목사(높은 뜻연합선교회)가 9월 28일 SNS를 통해 소위 ‘가나안 성도’에게 “명성교회 핑계대지 말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할 때 거기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헌금도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생겨나는 게 가나안 성도”라며 “그러나 그건 핑계대. 울고 싶는데 누가 뺏 때려 준 셈이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속상해 하는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상에 교회가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심일조 내기 싫은 교회, 심일조 내면 안 되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다. 다니기 싫은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다”며 “찾아보면 아직도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 심일조가 아니라 심의 구조를 내도 아깝지 않은 교회

도 있다. 물론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찾아도 보지 않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동호 목사는 “찾아도 보지 않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핑계하고 가나안 성도로 내 뺄면 안 된다”며 “핑계는 댈 수 있지만. 그 손해는 오롯이 자기 자신이 봐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상에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들이 죽을 힘을 다해 입증해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의 찬반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심일조 내기 싫은 교회, 심일조 내면 안 되는 교회’와 ‘심일조가 아니라 심의 구조’를 내도 아깝지 않은 교회’라는 그의 언급이 적절할지에는 의문이 일고 있다.

김동호 목사는 예장 통합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킨 다음 날인 9월 27일에는 SNS를 통해 “우리 통합 측 교단이 81년 만에 또 다시 신사참배 결의에 버금가는 역대급 결의를 하게 된 것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하나님과 후배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었다.

이대웅 기자

세교모 “명성교회 문제, 타협이나 수습 대상 아니다”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세교모)’에서 27일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세습 관련 결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9년 9월 26일,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 관련 수습위원회의 의견을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했다”며 “이 수습안은 목회자 세습을 금지한 본 교단 헌법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고, 교회 안 성도들과

교회 밖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교모 측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타협이나 수습의 대상이 아닌,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다. 따라서 세습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을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은 초헌법적 오류”라며 “그 결과 2021년 1월 1일부터 세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재심 판결을 수용하는 결정과 충돌할 뿐 아니라, 세습을 합법화시키는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대웅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를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없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LEE) | 213-276-8959 | email: usaiyk@gmail.com

2019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김신규 목사) • W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대학(M.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석사,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T(626)227-3454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p>	<p>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p>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p>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인민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p> <p>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M.Div)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p> <p>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Faith Christ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p> <p>3242 W. 8th Street #200., LA, CA 90005 Tel: (818)913-3115</p>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 M.A 석사과정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척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화,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화,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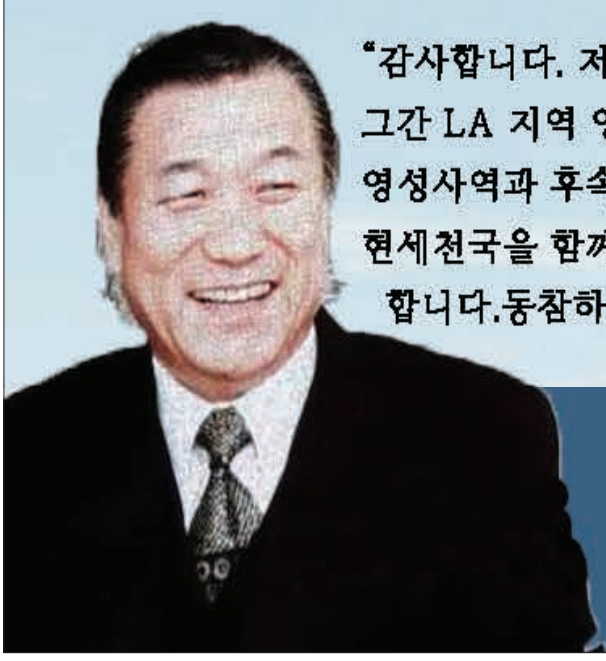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축 LA 새생명교회및 영성원 설립

장소: 미주크리스천대학교 2층 (3가와 램파트 사거리)
276 S.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213-703-3236

주일예배
오전10시30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철수 목사입니다
그간 LA 지역 영성훈련에 참여 하셨던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영성사역과 후속사역 힐링-멘토링으로 심리에서 심령으로 나아가
현세천국을 함께 누리하고자 미주지역에 교회및 영성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동참하시길 바랍니다.고맙습니다”

미용선교무료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2시-4시

내면의 불꽃을 가꾸는 지혜

영성 관리는 내면의 불꽃을 가꾸는 지혜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도 있고, 그 불이 점점 꺼져갈 때도 있습니다. 불이 점점 꺼져갈 때 우리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내면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내면을 잘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최근 C. S. 루이스가 아서 그리브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읽은 글이 제 마음에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꺼져버린 불과 거의 꺼진 불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네. 거의 꺼진 불은 능숙하게 다루기만 하면 살살 피워 올려 다시 살릴 수 있네." (C. S. 루이스, 『당신의 벗, 루이스』, 홍성사, 213-214쪽)

우리는 가끔 거의 꺼진 불처럼 내면의 불꽃이 약해진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내면의 불꽃을 잘 가꿀 수 있을까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다. 불씨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눅 12:49상)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이시며 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불 가까이에 머물수록 우리는 내면의 불꽃을 잘 가꿀 수가 있습니다. 게일 맥도날드는 "불꽃 곁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기운을 잃을 것이며, 반면에 불꽃과 함께하면 지칠 줄 모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기적으로 불꽃 되시는 예수님 곁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사람입니다.

내면의 불꽃을 잘 돌보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렘 23:29상)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우리 내면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내면의 불꽃을 잘 돌보는 길은 성령님 안

오직 하나님만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꺾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사 42:3)

요? 내면의 불꽃을 가꾸는 법을 배우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불씨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면의 불씨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면의 불씨입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불꽃입니다.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 때 우리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됩니다.

내면의 불씨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열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열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열정이 인간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롬 10:2)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사랑이 겸비된 열정만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불씨를 잘 가꿀 수 있을까요?

우선 내면의 불씨를 가꾸는 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기적으로 내면의 불씨를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내면의 불씨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토마스 아 캄피스는 "사람은 추위지기 시작하면 불을 피우는 그 작은 일을, 무슨 큰 작업인양 생각하여 오히려 외부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면의 불꽃을 잘 돌보는 길은 정기적으로 불꽃 되시는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

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행 2:3). 성령님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살전 5:19)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의 불길을 소멸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성령님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면의 불꽃을 잘 돌보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면의 불꽃을 잘 가꿀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꺾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사 42:3).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 불꽃이 꺼지도록 물을 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은밀히 계속해서 성령님의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불이 시들어갈 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우리 내면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 생활은 숯불 같습니다. 숯불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쉽게 식어버리고 나중에 꺼져버립니다. 주님의 불 곁으로 늘 다가가도록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꺾져가는 불을 능숙하게 다루어 다시 살려 주십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내면의 불꽃을 잘 가꾸어,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합시다.

중남미총회 현지인 선교대회를 다녀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와 성도들의 중보기도로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마음에 남는 3 가지의 은혜를 글로 써봅니다.

첫째는 파라과이와 브라질에서 사역할 때 저희 자녀들에게는 친 할머니와 같았던 권사님을 반갑게 만나볼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던 파라과이 텔레스페에서의 처음 개척 사역 때, 젊은 시절에 뜨거운 믿음을 가졌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으시며 하나 뿐인 아들 가정과 함께 지내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도할 때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사랑 같은 주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나오시게 된 후부터는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한국 선교대회를 참석하자면 먼 거리와 함께 비행기 노선 연결이 어려워 두 주간 이상씩 집을 비워야 할 때인데, 어린 저희 자녀들을 친 손자 손녀 이상으로 기쁨으로 잘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쌍과울로로 임지 이동을 명령 받았을 때는 공교롭게도 얼마 후 온 가족이 함께 쌍과울로로 이주하여 어려운 교회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미를 떠나고 후임들을 위해 거의 연락을 하지 못하고 지내던 중 누가 권사님이 소천 받으셨다는 잘못된 소식을 전해주는 바람에 제 아내의 밤새 울기도 했었는데, 마침 2주일 전 저희 교회를 깜짝 방문한 브라질 성도들을 통해 아직 쌍과울로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저희들의 비행기표는 이런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때 이미 교회 사무실에서 끊어놓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이라도 하신 듯 딱 맞는 스케줄로 예비해주셔서 권사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에게는 마음에 묶였던 한이 풀려지는 듯한 큰 위로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둘째는 지면에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회와 세미나를 통한 은혜였습니다. 남미 구석구석 제가 알지 못하는 작은 도시들에서 온 현지인 사역자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찾아와서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며 감사할 때면 주님 받으실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모든 피곤과 연약함이 씻겨 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셋째는 파라과이 텔레스페에서 선교했던 인디안 청년 '피델'이 어엿한 중견 목회자가 되어 찾아와 인사한 일이었습니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지금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그 날, 주님 앞에서 이런 눈물과 감격의 열매를 만나는 것임을...

처음 그 인디안 촌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현지인들의 목장 근처 국가에서 지정한 황폐한 땅에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좁고 더러운 짐승 우리 같은 곳에 살던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청년들을 불러내어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저주의 운명을 벗어나려면 다른 세계를 보아야 한다는 도전을 주며 안 나오려는 인디안들에게 차비를 주고,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옷과 선물들을 주면서 어렵게 나오게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제 아내의 스페니쉬 읽기 쓰기부터 비누 만들어 쓰는 법까지도 가르치고,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면서 제자훈련을 한 인디안 청년들이 세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날 만난 '피델'이었습니다.

중년이 된 그가 말합니다. '쓰레기 같았던 나를 예수님 믿게 하고, 불러내주어 가난과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이제는 아르헨티나에 유학까지 다녀와 스페니쉬도 잘하는 목회자로 인디안 교회를 목회하고 5명의 자녀도 있고, 자기 자동차까지 있다고... 말로만 가르쳐주지 않고 삶으로 보여준 목사님과 사모님을 자기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고...'

그날 밤 기도할 때 제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는 저의 눈물은 주님 십자가 은혜를 향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천국의 참기쁨은 지금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그날 주님 앞에서 이런 눈물과 감격의 열매를 만나는 것임을 믿으며,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과 중보기도의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 이은태 목사를 붙잡아 준 인생 말씀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른 비의 기적 I

늦은 비의 기적 II

이은태 저음 / 1권 232면 / 13,000원

이은태 저음 / 2권 252면 / 13,000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끼니를 걱정했던 이은태 목사가 수백억에 달하는 세 개의 빌딩과 영어 학교,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 대형 쇼핑몰과 크리스천 캠프장을 운영하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기적!

위클리프를 비롯한 17개 선교 기관들을 섬기고, MEC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20여 년간 2,300여 명의 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쇠퇴하고 있는 뉴질랜드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생생히 증거한다.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6 전화 745-1007 쿼란출판사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자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프로지의 특별한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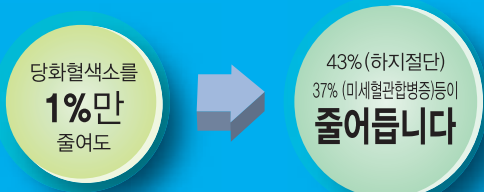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제대표 재내과외과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고혈압, 당뇨 합병증 연구
- 100여건의 생약학 분야 연구논문
- 미 연방재활연구소인원 개업센터 수석 연구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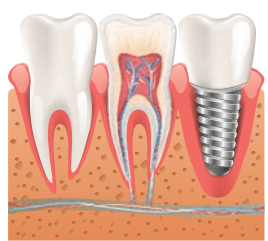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①수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가이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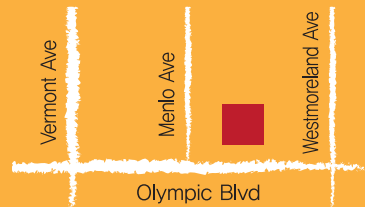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을 호텔 건너편)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라인
[4회 \$999]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 손가락
 - ✓ 발가락
 -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 탈모
- 치질
- 감상선
- 당뇨

“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땡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전신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움
- 염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는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항콜리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감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원산 캡슐 취급

배배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토 10시~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아)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1920~30년대의 교회 상황(사이비 접신파)

새로운 예수로 둔갑한 황국주가 새 예루살렘을 찾아간다며 두 만강을 건너 서울을 향해 떠났다. 그 때, 그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그의 아버지 황 장로와 누이 그리고 많은 부녀자들이 함께하였다. 새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이 퍼지자 각처에서 예수를 구경하러 대중이 몰려나와 그들 일행을 지켜보았다. 그를 따르는 수십 명의 처녀, 유부녀들과 남자들은 무리를 이루어 정상적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울려 먹고, 자고, 여행을 하였다. 이 과정에 정숙한 생활이 있을 수 없었으며, 난잡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 일행의 여행 모습을 직접 본 함경남도 삼호(三湖)교회 목사였던 조승제(趙昇濟)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광경을 기록하였다.

“..... [나는] 삼호교회 인근에 있는 무주교회 당회장이었던 관계로 그 교회를 순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배당 부근에 와 보니, 남녀가 섞인 6, 70명 정도의 무리들이 예배당 부근 그늘 밑에서 피서하고 있었다. 이곳저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 10여 명은 예배당 유리창문 밑에서 이리저리 훑어쳐 누워 있었는데 그들의 혼잡한 모습이 목회자인 내 눈에는 일종의 난류들 같이 보였다.”

가정을 버리고 황국주를 따르는 유부녀들과 처녀 등 60여 명이 그와 더불어 서울에 들어올 때는 전국 교회가 떠들썩하였다. 황국주는 자신을 예수라 칭하면서, 자기는 완전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호언하였다. 그는 삼각산에 기도원을 세우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더불어 소위 목가름, 피가름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혼음(混淫)하면서 이를 ‘영체(靈體) 교환’이라고 하였다. 평안도 안주노회가 조사단을 파견하여 혼음문제를 따져 물었을 때, 그들은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남, 녀간의 성문제를 초월했다.”고 호언하였다. 그러나 황국주는 결국 “운산의 한 유치원 보모와 큰 죄를 범하고 삼십육계를 치고 말았다.”

1933년 안주노회는 황국주, 유명화 등을 위협한 이단으로 규정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하고 사경회 초빙을 금지하였다. 같은 해 가을에 모인 총회에서 “각 교회 지경 내 이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테(體)(리룡도, 백남주, 한준명, 리호빈, 황국주)에 미혹지 말라고 본 총회로서 각 교회에 통첩을 발하여 주의 식히기로 가결”하였다.

소위 계시를 받았다는 무리들 중에 이런 성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여 불륜의 결과를 낳은 경우를 일찍이 주후 160년 경 소아시아 출신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몬타누스(Montanus)의 이단 성령운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난세가 되면 반드시 백성을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성적인 유혹을 통하여 ‘신의 계시’ 또는 ‘영체 교환’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비윤리적 불륜의 무리를 만들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눈여겨봐 두어야 한다. 이는 후에 나타나는 박태선의 전도관 그리고 문선명의 통일교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김교신(金敎臣)의 무교회(無敎會)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김교신의 무교회 주의는 사이비 접신파는 아니다. 그러나 그의 무교회주의는 한국 교회사에서 다루어야 하는 한 면이다. 김교신은 1901년 함남 함흥에서 부친 김념희(金念熙)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함흥 농업학교를 마치고 일본에 건너가 동경에 있는 정칙(正則) 영어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1920년 4월 동양 선교회 성서학원 학생들의 노방 전도에 감동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후 성결교회에 출석하여 1920년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가 출석하던 교회 안에 분규가 일어나 학자풍의 훌륭한 목사가 축출당하는 광경을 목도하고, 기성교회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김교신은 당시 무교회주의자로 유명한 내촌감삼(內村鑑三)의 저서인 「구안록」(求安錄), 「종교와 문학」, 「성서지연구」(聖書之研究) 등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고 있었던 때였으므로 자연히 그의 문하에서 성경공부를 통해 강한 영향을 받았다. 일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던 내촌에게서 김교신은 그의 애국사상을 배우게 되었고, 조국 조선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내촌감삼을 보통 무교회주의자라고 부르지만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전은 대지를 마루로 하며, 하늘을 천정으로 하며, 신도의 마음을 그 제단으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이며 그의 성령이 그들의 유일한 목사이다”라고 천명하여 무교회라는 말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따라서 그는 무교회(無敎會)란 말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적극 경계하였다.

1927년 4월 일본에서 귀국한 김교신은 함흥 영생여자고보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내촌의 문하생들이던 함석헌(咸錫憲), 송두용(宋斗用), 유석동(柳錫東) 등과 함께 성경연구 잡지인 「성서조선」(聖書朝鮮)을 그 해 7월 창간하였다. 그 제목에서 보듯이, 이 잡지에서는 ‘성서’와 ‘조선’이라는 두 가지 표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잡지의 창간사에서 천명한 것같이 이 그룹은 기성교회를 등지고 자기들이 구상하는 교회, 즉 무교회를 표방한 것을 간파할 수 있다. 그 창간사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성서조선아 너는 우선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소위 기성 신자의 수(手)에 거치지 말라. 기독교(基督)보다 외인(外人)을 예배하고 성서보다 회당을 중시하는 자의 집에는 그 발의 문[문]지를 털지 마라. 성서조선아 너는 소위 기독교 신자보다도 조선(朝鮮)을 소지한 조선 사람에게 가라. 시골을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거기의 초부(樵夫) 1인을 위함으로 여(汝)의 사명을 삼아라 (김교신). 성서와 조선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담긴 글이다.

칼럼

[목사의 서재] 쓴맛이 사는 맛

얼마전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오늘의 단어’로 ‘꼰대(KKONDAE)’라는 말을 선정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다른 사람은 늘 잘못했다고 여김)”이라고 설명을 붙였다.

아프리카 속담에 ‘죽어가는 노인은 불타고 있는 도서관과 같다’는 말이 있다. 노인 한 사람은 한 시대요, 그 시대의 산 역사다. 개개인의 지적 역량과 경험치, 인품과는 별개로 노인은 그 자체가 보물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사회학자 엄기호는 우리 사회에 ‘자신의 경험을 후대에 전승하고 조언을 주고, 참조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 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 없이 잔소리와 설교를 일삼는 ‘꼰대’에게 사회적 존경이 따라올 수는 없다.

“쓴맛이 사는 맛”은 시대의 어른, 거리의 철학자로 존경받는 채현국 선생의 생각을 정운현 작가가 기록한 책이다. 채현국 선생은 1935년에 사업가 채기업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방송국(KBS의 전신)의 공채 1기 연출직에 입사했다. 그러나 그 곳에서의 일이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탄광 운영을 돕게 된다. 사업을 통해 한때 개인 소득세 납부액 전국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지만, 돈 버는 것이 신앙이 되어 버리기 전에 그만두자고 생각하고 사업을 정리했다. 1988년부터 효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해 효암 고등학교와 개운 중학교를 돌보며 교육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효암 고등학교 정문 비석에는 ‘쓴맛이 사는 맛’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채현국 선생은 사람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인생에 쓴맛을 볼 수밖에 없기에 쓴맛도 인생의 일부이며 쓴맛을 본 사람이야말로 단맛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행복해지기 위해 돈 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단맛이라면 그는 누구보다도 단맛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돈 쓰는 재미’보다 몇 천 배 강한 것이 ‘돈 버는 재미’라고 말한다. 돈 버는 일에 한번 빠지면 자꾸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정의나 삶의 가치를 잃고 그저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 그가 잘 나가던 사업을 정리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시시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부지런하지 않으면서 한가로운 것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몸이든 의식이든 행동이든



애틀랜타성결교회
김종민 목사

모두가 한가해야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시시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가로우면 행복해진다. 시시하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반복적이다 보니 파격적이지 못할 뿐이다. 시시하고 식상한 것은 보통 우리 곁에 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자유’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구하지만 사회라는 구성체는 도덕과 윤리 규범을 비롯해 온갖 법규로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한다. 그러나 정작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에 구속되고 얽매는 데 있다. 채현국 선생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모험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의 틀 속에 갇혀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세상을 바꾼 사람, 자유로운 삶을 산 사람들은 모두 모험가들이었다. 다만 목표는 함께 잘사는 것이어야 한다. 기득권 상실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 기득권과 안락함은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상에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예나 지금이나 없는 법이다.

선생의 이런 생각은 가져본 자의 ‘훈장질’이 아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의 선상에서 수배 시국 사범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구속자를 빼내고 활동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나온 세월을 두고 “나는 비틀비틀하며 살아온 인생이다. 또 비겁하게도 살아왔다.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선생은 누린 것이 많았기에 그런 사람은 시대와 사회에 대해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 사명감이 그를 교육자요, 거리의 철학자로 만들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 꼰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쓴맛이 사는 맛”에서 발견한 채현국 선생은 우리 시대의 어른이자 ‘맛있는 사람’이다. 맛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서로 다를지 몰라도 동서고금에 공통된 가치는 바로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다.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1ST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RSVP for Open House
November 7th @ 7pm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주일예배
 교회자료
 마그네틱 메모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자서전(대필)전문

■ 자서전 쓸 분
 ■ 대한민국출생 8.15와 6.25등 많은 경험 후 지금 성공 자리에 서신 분

자녀들과 같이 자서전 쓰고 싶은 분 연락바랍니다.

자서전(대필)전문 작가(시인·박사)
T. (213) 618-150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여행 성도간의 교제, 단합, 힐링을 위한 시간!

교회 맞춤형 힐링 여행

교회 상황에 맞추어 원하시는 날짜, 인원, 맞게 여행 플랜을 드립니다.

11월

발보아 식물원 태평양연안 기차여행

기차 타고 떠나보자~
샌디에고 여행
 태평양연안 기차여행, 샌클라멘테 피어, 럭시 뷔페, 발보아 팍

11/9(토) 당일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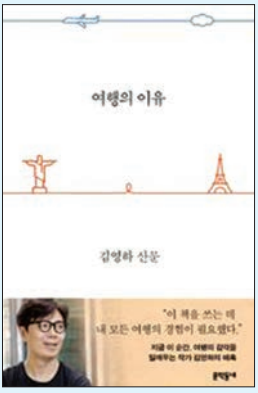
천 오백만불 보험가입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Tel. 213.434.1170
 Tel. 213.739.040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a@gmail.com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여행과 인생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여행의 이유
김영하
문학동네 | 216쪽

여행의 감각을 일깨워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깊고 아름다운 산문

인생과 여행은 그래서 신비롭다.

설령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와 시련, 좌절을 겪는다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찾아내고 행복을 누리며 깊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조앤 롤링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녀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고 남편과도 이혼했다.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정부 생활 보조금으로 살았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었다.

빈곤한 생활을 하던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기로 했다.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를 완성했다. <해리포터>는 67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4억 5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 새로운 삶을 만들었다.

인생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날마다 계획을 세운다. 잘 짜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다. 잘 짜인 계획은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기 때문이다. 계획이 실패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는 계획대로 안 될 때였다.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원했던 애굽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요셉의 가족으로서 환대를 받으며 사는 것을 계획했을 것이다. 그러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광야도 그들이 계획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인생이 계획대로 잘 풀린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여행이다. 여행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 가장 설레는 시간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다.

그러나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도, 완벽한 여행이란 없다. 계획은 늘 실패하게 되어 있다. 친한 친구와 여행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한 번은 꼭 싸우기 때문이다. 여행 가서 싸우는 것을 계획에 넣는 사람은 없다.

<여행의 이유>는 소설가 김영하의 여행 산문집이다. 그는 "대부분의 여행기는 작가가 겪은 이런저런 실패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오는 그런 여행기가 있다면 아마 나는 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읽고 좋아하는 '창세기'는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성경이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 약속한 땅으로 여행을 간다.

고향을 떠나 여행을 시작할 아브라함의 목적은 무엇이였을까? 아마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와 땅이었을 것이다. 충분히 여행을 떠날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행을 통해 얻게 된 것은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여행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을 얻었다.

여행은 본질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는 것을 선물로 준다.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선사한다.

<동방견문록>을 남긴 마르코 폴로의 목적은 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버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돈보다 더 큰 인류의 유산을 선물로 남겼다.

"마르코 폴로는 중국과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지만 이 세계가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 세상에는 다양한 인간과 짐승, 문화와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 그것을 <동방견문록>으로 남겼다."

여행을 할 때, 대부분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목표는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이다.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보고 오겠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보겠다. 인도에 가서 요가 클래스에 들어가겠다. 캐나다에 가서 한 달을 살고 오겠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여행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파리는 생각했던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고, 중국의 만리장성은 너무 힘들다. 인도는 명상을 하기에 복잡하고, 캐나다는 춥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으로 여행을 평가할 수 없다.

저자는 "여행은 내면의 성장이 있다.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그런 마법적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여행의 진짜 의미"라고 말한다.

인생과 여행 연결, 그래서 신비로운 것 여행이내 인생이었고, 인생이 곧 여행 과거 집착한다면 여행은 재난으로 끝나

저자는 여행과 인생을 연결한다. "인생과 여행은 그래서 신비롭다. 설령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

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와 시련, 좌절을 겪는다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찾아내고 행복을 누리며 깊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미국 야구 선수들의 꿈은 메이저리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구단에 소속된 선수 중에서 메이저리거에서 한 번이라도 땀 선수는 약 7.4%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선수는 마이너리거로 선수 생활을 마친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불행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니다. 경기에 출전해 최선을 다했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뤘고, 은퇴한 후에는 코치가 되어 후진을 양성하거나 다른 일을 찾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 얻으려던 것보다 더 소중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여행의 이유>는 단순히 여행지를 소개하고 맛집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저자는 "여행이 내 인생이었고, 인생이 곧 여행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여행을 좋아하고 많이 다녔다. 그는 이 책에 여행의 노하우를 담지 않고 여행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책은 크게 9장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은 저자의 풍부한 상상력과 지식이 더해져 삶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담아내고 있다. 여행 지침서 이전에 인생 지침서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다.

우리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실패한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의 정신이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에 집착한다면 여행은 재난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행은 계획이 아니라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행, 계획 아닌 현실을 경험하는 것 여행 경험, 상상과 현실 구분하게 해 파리 증후군, 환상과 현실 사이 간극

'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심리학자가 사용한 말이다. 그는 유독 파리에서 호르몬이나 현기증 같은 증상을 겪는 일본인 여행객들을 조사했다. 그들은 대부분 파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 매우 달랐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멋진 환상과 일치하지 않는 현실에서 괴리감을 느낀 것이다. 여행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겪는 떨림과 같은 것이다.

여행의 경험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게 한다. 계획은 계획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계획대로 안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여행은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짜여진 각본은 패키지 여행과 같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끝난다. 그러나 자유 여행은 볼 수 없는 도시의 이면을 보게 한다. 그곳에 새로움이 있다.

우리 인생도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계획이 실패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계획이 실패한 곳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실패 속에서 '믿음'을 배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계획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인생은 여행처럼 설렌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www.cmmlogos.org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뉴저지 주에 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도 의료보험 의무화와 미가입 벌금 제도가 재시행됩니다. 의료비 대책과 벌금 면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에 문의하세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업
- 1996년부터 24년간 미 전지역의 한인 크리스천들이 참여
- 월 \$175로 의사방문, 검사, 입원, 수술은 물론 건강검진까지 지원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프로그램 1년에 \$500)
- 2년 이상 가입 회원사망 시, 최대 \$17,500까지 장례비 지원
-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 80	\$ 40
2인	\$325	\$260	\$160	\$ 80
3인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임신/출산 건강검진(\$500/1년)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입원, 수술	입원, 수술

*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보험 회사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업 기관입니다.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Since 1996
CHRISTIAN MUTUAL MED-AID
Owned by Logos Missions, Inc.
899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CMM CA 지부 애너하임
이시라 ☎ 213-318-0020
김희자 ☎ 562-584-8880
※ 홈페이지 www.cmmlogos.org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Phone: 773-777-8889 (Headquarters)
714-333-7487 (CA 지부)
Email: ca@cmmlogos.org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Dietary Supplement

햄프함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함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2+1
2병 구입시
1병더
10월 30일 까지

신이 내린 항암식품!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오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햄프함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1,800 원

\$250 +Tax

\$19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함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2 장에 좋다

함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심혈관에 좋다

플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4 당뇨에 좋다

함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간에 좋다

함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항암에 좋다

함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함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7 식이섬유가 많다

함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칼슘이 많다

함초에는 우유의 2배가 넘는 양의 칼슘이 함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히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의 보고서 '놀라운 함초의 효능' 에 항염증, 항균, 감작성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바하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꽃소금, 맛소금)
나트륨 Na: Cl	바다염 (Na)
칼륨 K: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슘 Ca: Cl	
마그네슘 Mg: Cl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NO 중금속
NO 간수



515g
바하 천일염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함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함초! 바하함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바하함초분말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E.UM Cafe (이음카페)

☎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함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CBD BAJA HAMCHO Inc.
www.hempbiousa.com hempbiousa@gmail.com

☎ (213)386-3896, (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10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50

2+1
2병 구입시
1병더
10월 30일 까지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올가늌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 예방에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등급향상과 환자의 약물,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에서 경험하세요